

10년 전쯤 미국에 갔을 때 교포신문에서 '레이크 타호로 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레이크 타호는 미국 북서부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로 그 주변에 라스베이거스 버...



불자 세상보기

권경희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도박 권하는 세상

아주 달라지는 상태' 즉 환심장, 줄여서 환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인 요인은 도박 기계의 구성 원리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상'을 활용한다.

이 가운데 가장 보상 효과가 높은 것이 ④번, 즉 변동 비율을 적용했을 때다. 슬롯 머신이 바로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다. 어느 일정한 간격으로 이룬바 대박이 터진다면 사람들은 대박이 터질 거라고 예상되는 때 외에는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음을 휘어잡게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단순한 오락에서 도박으로 넘어가는 유혹에서 초연해지기 힘들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 그동안 도박장 개설과 운영 등에 많은 규제를 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여러 규제를 완화시켰고 그 결과 전국이 '바닷물'에 빠져버렸다. 이것이 힘들게 사는 서민들의 오락을 위한 조치라면 고맙게 받아들여졌다. 가끔은 요행도 바라는 것이 인간 심리니까, 그리고 앞서 말한 보상이 충족되면 사는 재미 또한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누구는 헛짓 이쁜인줄 알았다는 '바다이야기'가 온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지만 대통령은 심각한 정책의 실수였을 뿐 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몇 상부 권력 측근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또는 서민들의 약한 심리를 파고들어 한 쾌 크게 쟁기기 위한 행위였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슬롯 조작 등으로 변동 비율 보상의 가장 큰 전제인 총금액의 일정성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했다는 상품권 제도로는 엉뚱하게 자 격미달의 상품권 회사들만 배불리고 있다.

뻔히 속는 줄 알면서 속는 도박에 빠진 서민들이나, 이해주는 척하면서 등을 치는 정부나 둘 다 환심장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불자의 눈

"신심은 장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절집'에서 쓰는 말로, 승가의 위엄(威儀)나 불상(佛像)의 장엄이 신심을 오로지하는 데 없어서 안 될 요소라는 뜻이겠다. 말의 모양새만으로 따지고 들면, 모든 존재의 실상을 '공(空)'으로 보는 불교의 가르침과 상충된다.

금강경에서도 '형상이나 음성으로(부처를) 찾으려 하는 것은 사도(邪道)일 뿐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불교에서는 불상을 장엄하는 데 온갖 정성을 쏟고, '공(空)'을 설파하는 경전조차도 정교한 수사(修辭)를 동원하는가? 불교의 모든 경전과 의식, 심지어는 사찰의 전각들도 모든 중생들을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뗏목'과 같은 것이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는 선사들의 다그침도 일종의 '뗏목'이다.

그래서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는 의식을 장엄하고 정교히 하는 데 공력을 쏟는다.

'한글법요집' 완간을 환영하며

종교는 개인 차원의 신앙이 아니다. 교주, 교리 체계, 신도 그리고 교우의 경배 방식이나 의례를 갖춘 때 비로소 종교가 되는 것이다. 한국불교도 1,60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고유한 의식 체계를 다듬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도량서'는 한국 불교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전이나 의식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재가불자나 초심자들에게는 '일 듯 말 듯'한 그 무엇이었던. 무턱대고 따라 외는 것도 하나의 수행 방편이긴 하지만, 수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한글통일법요집'을 완간했다. 실로 수회찬탄할 일이다. 법요식과 상용의식에 쓰이는 의식문과 경전을 한글화했다. 한문과 달리 한글은 '조사'와 '어미'가 문장의 성분과 문법 자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음조와 운율을 살리기 어렵다. 이 점은 앞으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 기우이겠지만, 이런 보완점을 빌미로 현장에서 한글 의식문을 상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식'도 수행이다. 형식과 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점을 인식하여야만 불교의 현대화·대중화·생활화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통일법요집'이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본다.

이렇게 들었다 사이버 휴가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버린 것은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현재의 일을 이모저모로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 없이 그것을 잘 알고 익히라.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해볼까' 할 때마다 울리는 휴대전화, 업무의 효율을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이제는 업무를 방해하고 피로를 주는 골치덩어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연구소 바세스카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메시지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인한 '업무 방해' 시간이 하루 2.1시간에 달했다. 여기에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화로 인한 방해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영국 런던대 글렌 윌슨 정신의학과 교수의 실험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기기 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분산은 지능지수 저하(10점)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아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나온 지능지수 5점 저하보다 나쁜 결과다.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끊임없는 방해 때문에 중독된다는 점이다. 짧은 업무를 제때 처리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메시지나 전화를 기다리는 집착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법으로 '사이버 휴가' 기간을 제시한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 사이버상의 접속을 끊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친필 편지를 쓰라는 것이다. 늘 정보통신의 폐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집착과 불안을 놓아버리는 것은 어떨까. 조사스님들의 방학(放下)하라는 말씀이 가슴에서 울려온다.

박봉영(해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현등사 사리구 제자리 찾아야

조계종이 '현등사사리구제자리찾기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한다. 현등사 사리구 찾기에 종단이 직접 나선 모양이다. 현등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도난당했다는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등사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재판결과에 대해 종단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여 반가운 마음이다.

재판부가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세웠던 논리는 지금과 반발 교적이다. 지금의 현등사 사리구를 찾아 놓았던 현등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불교에서의 법맥이라는 개념을 강그리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찰에 소장된 어떤 성보도 사찰의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다. 즉 부처사 무량수전도 부처사가 아니고, 해인사 팔만대장경도 해인사 것은 아니다. 지금의 부처사가 옛 부처사가 아니고, 해인사 또한 옛 해인사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맥을 통해 연속성이 이어진다. 사찰의 연속성이 그렇고 종단의 연속성이 그렇다. 법맥은 사회에서의 혈연과도 같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리구 찾기의 범위를 넓혀서버렸다. 재판부의 논리가 사찰과 종단의 연속성을 부정한 것이니 만큼, 불교계의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 되어버

렸다. 부디 현등사사리가 제자리를 찾고, 불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염원한다.

박경주(서울 성북구 수유동)

북한 수해지원에 적극 나서자

지난달 뜻하지 않게 남북한이 동시에 당한 수해는 너무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수많은 실종자와 사망자, 부서진 가족과 도로를 황망하게 쳐다보는 수재민들의 모습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우리 불자들 도 자원봉사단을 꾸려 이들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 땀 흘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남한은 수해를 복구할 여력이라도 있지만 북한의 처지가 그렇지 못한 듯하다. 조계종 민중공동체 추진본부와 JTS같은 불교계 단체들이 당장 필요한 쌀과 밀가루, 생필품을 보내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우선 미사일로 국제관계를 냉각시키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을 탓해야겠지만 이를 이용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행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큰ભ 피해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에 정치적이거나 갈등이 장애가 될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굶주리거나 아파하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가 항상 따라야 하는 남북정부당국 간에는 물

자지원이 끊겼을 수 있다. 그럼수록 정치적 부담 없는 종교계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철용(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먹고 마시는 휴가, 이제는 그만

꽤 막힌 도로에 짐뿔터위로 짜증이 나는 휴가를 피해 지난주 강원도로 휴가를 다녀왔다. 매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오지만 이젠 휴가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을 통해 휴가를 수해 피해 복구에 사용하는 소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과 휴가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들에게는 더 큰 추억이 될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이 될 것이다.

아니면 산사의 템플스테이 등에 참가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바쁜 업무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산사 체험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산이나 강, 바다에서 먹고 마시고 놀기보다 남을 돕거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휴가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방주현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전통따주기지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제 시 임지손톱 뿌리 밀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시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약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사할기 및 필수 부항·팩트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40분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